



S-미술아카데미 개설

본회(회장 권영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미술교육을 위해 S-미술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S-미술아카데미는 지난 3월 11일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백악미술관에 실기강의실을 마련해 '2024 봄학기 미술실기강좌'를 시작했다. 봄학기 강좌는 오는 6월 29일까지 15주에 걸쳐 5개 강좌가 진행되며 교육수준과 효과를 높이기위해 강좌별 15명이내로 수강생을 모집했다. 일반인 대상 교육 경력이 많은 동문 강사들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유화 초중급(강사 안성규)', '프리페인팅-자유창작(강사 임철순)', '태블릿PC로그리는유화&수채화(강사 이필두)', '여백과묵향의힐링-사군자.문인화(강사 변영혜)' '나의이야기와그림-그림책워크샵(강사 곽영권/한성원)' 등 5개 강좌이다. 그동안 본회는 2022년 미술강좌를 SNU장학빌딩에서 개최하는 등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사태와 교육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백악

미술관 김현일(06동양) 관장의 제안 및 도움으로 장소를 마련해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다. 김현일 동문은 "아카데미가 자리잡힐 때까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좌개설에 힘써준 임철순(74회화/경기대 명예교수) 동문은 "아카데미 운영이 쉽지는 않겠지만 강사들도 동문으로 봉사한다는 한 뜻으로 시작한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두 동문의 '태블릿PC로 수채화 유화그리기' 수업 컴공출신 수강생은 "그림을 배우고 싶어 시작했고 과제를 통해 다양한 기법을 보고 배울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한다. 또한 같은 수업을 듣는 김영신 약사는 "공간 시간을 초월해서 마음껏 느낌을 표현할수 있는 아이패드 그리기 수업을 칠순 코앞에서 최고의 강의로 들을 수 있게 되어 행운"이라고 하며 운영진에 감사했다. 모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동문들도 이 수업을 들으며 "실제 캔버스에서 누릴수 없는 편리하고 다양한 기법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진입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했다. 한편 본회는 첫 학기임을 감안해 정원내 수시모집을 하기로 했다.(수강신청 010-8605-8065)

본회소식

S-아트페스타 2024



본회가 주최하고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는 'S-아트페스타 2024'가 오는 4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전관에서 개최된다. S-아트페스타는 작품판매전 'S-아트페어'와 모교 졸업전시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 '베리타스미술상전', 그리고 서울대동문전 '숨은예술가들' 등 3개 전시로 구성된다. 또한 개막행사는 4월 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S-아트페어 2024

'S-아트페어'는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작품소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와 (사)에스아트플랫폼이 개최하는 작품판매전으로 전시수익금은 장학기금 및 창작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베리타스미술상전 2024

'베리타스미술상전'은 모교 졸업전시 동창회장상(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이다. 베리타스미술상은 유망한 젊은 후배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본회에서 2021년 제정한 미술상이다. 이번 전시 참여작가는 유지원(19동양), 권민주(19서양), 고수정(19조소), 배인규(17공예), 윤은서(17공예), 나희연(18디자인), 박소영(18디자인) 동문 등이다.

숨은예술가들 2024

'숨은예술가들'은 서울대동문전으로 지난해 프레전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열리게 됐다. 참여 작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법조인, 정치인, 의료인, 경제인, 교육자, 음악가 등 다양한 직업의 서울대 동문들이다. 특히 역량이 뛰어난 동문의 경우에는 본회 명예회원으로 영입해 함께 전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작품활동 지원을 할 예정이다.

Serendipity 2024

오는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갤러리B에서 'Serendipity 2024'이 개최된다. 2022년도에 이은 'Serendipity'의 두 번째 전시로서 올해에는 각기 다른 경험을 거친 열 넷의 개인이 만나 하나의 전시를 이룬다. 전시명 세렌디피티(Serendipity)는 여러 뜻을 가지는데 흔히 뜻밖의 재미, 우연한 발견, 행운 등을 일컫는다. 전시명처럼, 다른 매체와 표현 방식을 가진 열네 명의 작품은 전혀 관계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한자리에 모였다. 본 전시는 우연히 모인 열네 개의 이야기가 서로 관계를 맺고 새롭게 확장하는 과정

에서 만나는 뜻밖의 재미를 찾고자 한다. 전시기간 중 4월 27일(토)에는 임지영 칼럼니스트 겸 기획자(느리게 걷는 미술관,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수업 저자)와 아트코치들이 '그림 보고 글쓰기'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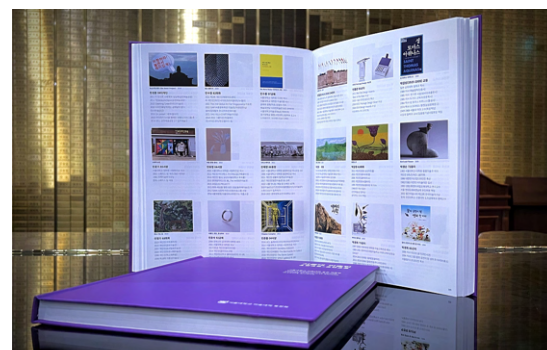


미술여행전 '이시동시' 개최



본회가 개최한 미술여행에 참여한 동문들의 전시회 '이시동시(異時同視)'가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강남구 신사동 갤러리PAL의 초대로 개최된다. '이시동시'는 '다른 시대의 작가들이 같은 장소를 보는 시각'이라는 의미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그림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풍경을 바라보며 이를 통해 연결되는 우리를 조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 참여 동문들은 지난해 9월 속초, 올해 2월 충주미술여행을 통해 옛 그림 속 풍경이 있는 곳을 탐방하고 지금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갤러리PAL은 본회와 MOU를 맺고 매년 1회 초대전을 열기로 했는데, 이번 '이시동시'가 그 첫 번째 전시이다.

'서울대미술인' 회원할인 연장



본회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발간한 '서울대미술인 1946-2023'에는 46학번 원로동문부터 23년도 신입동문까지 시각예술은 물론, 정치, 경제, 교육, 음악 등 모든 분야의 3,000여명의 실적이 수록됐으며, 소장가치를 높이고자 한정판으로 제작됐다. 본회는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록의 회원할인기간을 도록 소진 시까지 연장해 구매신청을 받는다. 단 평생회비 또는 올해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해 할인가 구매가 가능하다.

- 구매신청 : 문자(010-5235-1946)로 신청(부수, 성명, 학번, 학과 명시)
- 회원할인 : 5만원(정가 15만원)
-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소확행아트컬렉션' 출품신청안내

본회와 (사)에스아트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2024 소확행아트컬렉션'을 개최합니다. 소확행아트컬렉션'은 동문들의 작품 또는 소장품을 소개하고 판매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작품소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개요

- 전시기간 : 2024년 5월 2일(목) - 5월 8일(수)
- 개막행사 : 2024년 5월 2일(목) 오후4시(예정)
- 전시장소 :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서울 서초구 효령로72길 60)

■ 신청요강

- 신청대상 : 서울대학교 동문 및 서울대미대 재학생
- 신청기한 : 4월 14일(일)까지(전시장여건상 신청순마감)
- 신청방법 : 1)문자신청(010-5235-1946)

※ 신청시 소확행/성명/입학년도/학과/이메일주소 기재

2)출품료납부: 1점=3만원/ 2점이상=1점당 2만원

입금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입금시 성명/학번/학과 기재

- 자료제출 : 4월 21일(일)까지 메일(snuarta@naver.com)로 제출
- ※ 각 작품 이미지 및 캡션(작가명/명제/재료/규격/가격)

■ 출품요강

- 출품작품: 회화/조각/공예 등(판매가능한 작품), 1인 5점 이내
- 작품규격: 평면-높이90×90cm이내(액자포함), 입체-높이50×50×50cm이내

■ 작품반입 및 반출 :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 작품반입: 5월 1일(수) 오전10시-오후3시
- 작품반출: 5월 9일(목) 오전10시-오후3시

■ 작품판매

작품판매시 작품구입비(출품가의 50%)를 지급하며, 전시수익금은 장학기금 및 창작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 문의 : 02-877-8065(월~금 오전10시 - 오후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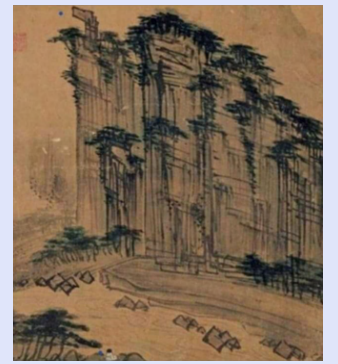
여행후기 - 눈·온천·크루즈 충주미술여행



58+20=행복 그리고 감동

본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두 번째 미술여행인 '눈·온천·크루즈-충주미술여행'을 충주일원에서 개최했다. 단양, 청풍, 수안보, 문경 등 1박 2일간 실시된 이번 여행에는 권영걸 회장을 비롯해 58학년부터 20학번까지 총 36명이 참가하였다. 첫째 날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에서 출발한 일행은 남한강 안에 자리 잡은 세 개의 봉우리인 도담삼봉과 충주호크루즈를 타고 구담봉, 옥순봉 등 단양팔경을 탐방하였다. 단양팔경은 단양군수를 지낸 이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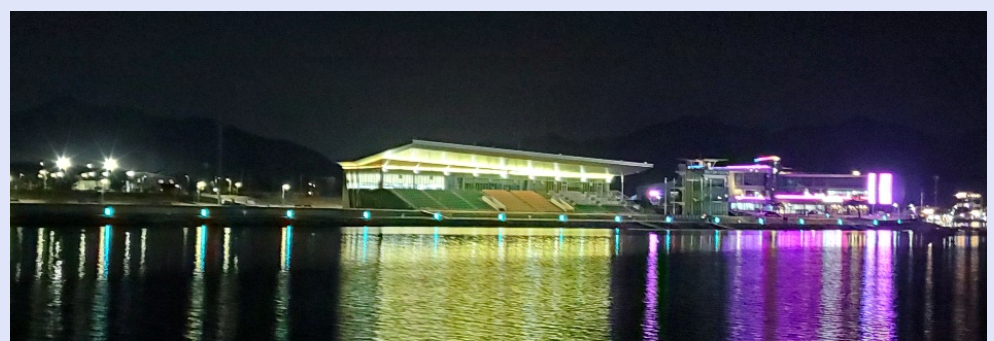
비롯하여 김정희, 김홍도, 이방운, 황준량, 홍이상 등이 많은 시와 그림을 남긴 곳이다. 또한 조선시대 개국공신인 정도전은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 할 만큼 도담삼봉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 도담삼봉이 보이는 청호식당에서 단양의 특산물인 마늘이 들어간 더덕마늘정식으로 점심을 한 후 장회나루로 이동하였다. 장회나루에서 청풍나루로 가는 충주호크루즈 선상에서 많은 동문들이 현장



스케치를 했으며, 특히 이민주(76회화) 동문은 즉석에서 승객들의 초상화를 그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림을 받은 분이 보답으로 본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청풍나루에 도착 후 청풍문화재단지로 이동해 충주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향교, 관아, 민가, 석물군 등 문화재를 구경하였다. 이후 저녁식사 장소인 충주 채원식당에서 충주에 거주하는



공강자(62회화), 한규남(63회화), 전민숙(74조소) 동문 등이 일행을 맞이하며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강자 동문이 본회에 후원금을, 전민숙 동문이 저녁식사비를 쾌척했다. 또한 쌀과 화장품세트 등 충주 웰컴선물도 동문들에게 전달됐다. 채원식당에서 목은지김치찜, 우렁쌈밥 등 다양한 메뉴로 저녁식사를 마친 일행은 '탄금호일렉트릭유람선' 선착장으로



향했으며, 이곳에서 김정옥 유람선 대표가 부부동반으로 충주명예시민인 권영걸 회장과 일행을 맞이 했다. 탄금호일렉트릭유람선은 소음공해가 없는 유람선으로,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전기로 운행되는 크루즈이다. 탄금호에서 충주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구경하고 왕의 온천으로 유명한 수안보에 있는 '라마다수안보파크호텔'로 이동했다. 호텔 측에서 온천수가 나오고 안마의자가 비치된 디럭스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준 덕분에 온천욕과 안마를 객실에서 즐길 수 있었으며, 온천욕 용품을 선물로 제공받았다.





김신현(58회화) 동문은 “제일 꼭대기라도 젊은 후배들과 어울려 행복했다. 다음에도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한영옥(58회화) 동문은 “그동안 많은 여행 중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동문들과의 어울림이 편하고 든든함에 새삼 감동이었다. 다음에도 참가하고 싶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유일한 재학생 참가자인 모교 4학년 서예지(20동양) 학생은 “이번 충주미술여행은 제게 있어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 도담삼봉과 비취빛



둘째 날 첫 일정은 문경새재로 연로한 선배들을 배려해 제1관문 주출관을 거쳐 오픈세트장까지 옛길을 걸었다. 옛길박물관을 관람한 뒤 대통령의 맛집 새재할매집에서 고추장양념석쇠구이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박정희대통령이 하숙했던 집 청운각과 문경도자기박물관을 관람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한 사람씩 이번 여행의 소회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히 조하늘(19동양) 동문의 노래와 임영선(79조소) 동문의 이승만 전대통령 성대묘사는 여행의 흥을 한껏 올려주었다. 여행을 마친 뒤 소감을 통해



물가, 수려한 산맥이 어우러진 모습, 청풍나루의 위엄있는 광경은 그림 속 세계를 거니는 듯 했다. 단원의 작품에 등장하는 명소를 실제로 마주하니 너무나 장엄해 벽찬 감정이 들었다. 이러한 멋진 풍경과 함께 특산물 가득한 식사의 구



성이었기에 더욱 기억에 남고 만족한 여행이었다. 또한 훌륭하신 동문 선배님들과 함께 장관을 유람하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후배에게 아낌없는 배려와 사람으로 답해주신 선배님들의 모습에 감명받았다. 예술가로서 모범이 되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저 또한 성실하게 작품에 임하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노력해주신 미술대학동창회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김현치(동양88) 동문은 “졸업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첫 동문여행이라 가기 전에는 조금은 느긋한 마음이었었는데 여행을 다녀와서 일주일간 여운이 많이 남았다. 단양팔경의 좋은 풍광보다 그 길에서 여행을 함께한 선배님들의 모습이 더 깊이 감명에 남았던 것 같다. 느린 발걸음을 서로 배려하면서 건강한 지적 호기심을 발산하며 성큼 다가온 새 봄날의 공기를 스케치로 즐기시는 모습이 참 편안하고 아름다웠다. 좋은 자극을 받고 성숙한 분들과 함께 건강해지는 여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여행후기를 남겼다. 본회는 미술여행 이후 여행에서 찍은 영상들을 모아 공식 유튜브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에 여행스케치 영



상으로 공개했다. 이번 미술여행은 선후배가 함께 장관을 관람하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으로 도슨트 김명은(17동양), 스태프 박도현(16디자인) 등 본회 간사 들과 임원들이 기획 및 진행을 맡아 수고해주었다. 한편 본회는 지난해의 '속초미술여행' 참가자들과 함께 지난 3월 26일 강남구 신사동 갤러리Pal에서 '이시동시 異時同視'라는 제목으로 미술여행전을 개최했다. 전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계속된다.



모교소식



모교 2024년도 입학식

모교(학장 정의철)는 지난 2월 29일 74동 오디토리엄에서 2024년도 입학식을 진행했다. 입학식에는 104명의 학사와 68명의 석박사 신입생이 참석했다. 정의철 학장은 환영사에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을 언급하며 이 명언이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원래 의미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정신이며, 현재 아는 것에 자만하지 말고 시간의 유한함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입생을 격려했다. 이와 더불어 환영사의 마지막에 올해 모교에 새로 부임한 강호연 교수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3월 '졸업하면 뭐할래?'

모교 진로특강시리즈 '졸업하면 뭐할래?'가 지난 3월 27일에 ZOOM 비대면 강의로 개최됐다. '졸업하면 뭐할래?'는 미술전공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 시리즈로, 여러 전문가를 초청하여 예술과 삶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생각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특강에는 이혜인 작가(시각예술)와 배세진 작가(도예)가 강의를 맡았다. 이혜인 작가는 '지금, 여기의 삶을 조건으로 작업하기'를 주제로 자신의 작업과 그 일대기를 소개하며 삶의 조건과 작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온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배세진 작가는 '작가와 교육자 사이에서'를 주제로 졸업 이후 교육과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예비 작가들을 대상으로 작가와 교육자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의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됐다.

뤄치 초청강연 '중세기기록'



모교 동양화과는 지난 3월 20일 수요일 서울대학교 74동 407호에서 '중세기기록 中世紀筆記'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저명학자 료치 Luo Qi 洛齐의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와 동시에 지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74동 우석갤러리에서 같은 주제의 료치 개인전 '뤄치의 중세기기록'이 개최됐다. 강연은 중국어로 진행되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강연자이자 작가인 료치 Luo Qi는 1980년대 중국에서 전개된 서법주의 운동의 창시자이자 선구자이다. 현재 중국미술학원 부교수를 지내고 있으며, 항저우, 밀라노, 포르투갈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진=관악창의영재교육원 11기 수료식

관악창의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서울대학교 관악창의영재교육원(원장 김형숙)에서 2024년 1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난 3월 4일에 모집이 공고되었고, 지난 3월 25일에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선발은 오는 4월 중에 진행된다. 관악창의영재교육원은 관악구 거주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꾀하고자한다고 교육원은 밝히고 있다. 교육원의 각 과정은 방학 중 집중교육, 주말 교육, 체험 학습 및 현장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미술대학 극예술연구회

제115회 정기공연 '어머니'



모교 극예술연구회가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대학교 두레문예관(67동)에서 115번째 공연 '어머니'를 무대에 올렸다. 모교 극예술연구회는 미술이란 범주 아래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연극에 대한 사랑으로 모인 연극 동아리다. 본 공연은 김현진(21동양) 학생의 기획과 박단비(21조소) 학생의 연출 하에 진행되었다. 김나연(23동양), 김하연(21서양) 학생 외 타교생 2명이 배우로 올랐고, 곽상아(22서양), 고가현(23공예), 정인경(23디자인), 조민경(23디자인), 김지윤(22조소), 조해인(22조소) 학생과 타교생 2명이 이 무대를 담당하였으며, 유영선(21서양), 양휘서(22서양), 박수민(21디자인), 정지후(21동양) 학생과 타교생 2명이 조명을 맡았다. 최윤진(22서양) 학생이 의상분장을, 김은주(18디자인), 윤희경(19디자인), 박설아(20디자인) 학생이 디자인을 맡았으며, 금민정(19디자인), 안정인(19조소), 이재인(21서양) 학생외 타교생 1명이 영상팀에서 활약하였다. 1966년 실험공연 '여름'을 시작으로 쉬지 않고 공연을 올려 온 모교 극회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언제나 새로움을 좇으려 하는 도전 정신으로 대학 연극 예술을 선도해 왔다.



서울대소식



2024학년도 입학식

지난 2월 29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체육관(71동)에서 2024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학기 신입생은 지난 3월 1일 기준 첨단융합학부 학생 229명을 비롯한 학부생 3,776명,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2,838명, 박사과정 809명으로 총 7,423명이다. 입학식은 서울대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중계됐으며, 김종섭 총동창회 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김회장은 “책상 앞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소중함과 봉사 활동의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라며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원의 아침밥’ 확대운영



학생회관식당(63동)에서만 운영됐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제1공학관식당(301동)까지 확대 운영된다. 생활협동조합(생협)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부터 제1공학관식당은 오전 8시 20분부터 하루 준비 수량인 200식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및 천원의 식사 이용을 위해 1년에 한 번 결제 카드 등록이 필요한 학생회관식당과 달리, 제1공학관식당에서는 학생증 제시만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중앙도서관, ‘LikeSNU’ 공개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이 지난 3월 4일 빅데이터 기반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서울대답게, 서울대처럼)의 2단계 시스템을 새롭게 공개했다. 지난해 2월에 처음 선보인 LikeSNU는 서울대 구성원의 중앙도서관 도서 대출 이력과 관심 분야를 수합한 빅데이터에 기반해 관련 도서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LikeSNU는 2단계 시스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에 따르면 3단계 시스템에서는 수집 데이터를 원문까지 확장하고, 콘텐츠 토픽 분류 및 알고리즘 체계를 고도화해 AI 기반의 학술 어시스턴트까지 탑재할 계획이다.

셔틀버스 통합서비스 도입



지난 3월 4일부터 셔틀버스 통합 서비스가 도입됐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면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운행시간표를 확인하고, 고객 문의와 분실물 접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하 곳곳에 서비스를 이용한 박희선(23경영)은 “버스의 실시간 위치가 실제 위치와 일치하지 않아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다. 이에 대해 캠퍼스관리과 권건우성 주무관은 “서비스를 담당하는 용역 회사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교내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제101학군단 입단식 및 승급식

지난 3월 7일 오전 9시 학군단(66동)에서 ‘제101학군단 입단식 및 승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를 통해 64기 학군사관후보생 14명이 3학년 후보생으로 입단하고, 63기 학군사관후보생 11명이 4학년 후보생으로 승급했다.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은 학군사관후보생을 교육할 목적으로 전국 주요 대학에 설치된 장교 양성기관으로, 학군사관후보생은 대학생활 동안 학사과정과 장교 양성 교육을 동시에 이수한다.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3학년 후보생으로 입단한 후 4학년 후보생으로 승급하며,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한다.



봄동아리 소개제 개최

제29대 총동아리연합회 'promise'가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문화관 앞과 잔디광장에서 '2024 서울대학교 봄 동아리 소개제'를 개최했다. 봄 동아리 소개제는 학내 각 동아리가 운영하는 자체 부스와 동아리 공연으로 꾸러졌다. 공연을 올린 동아리는 'ADBC' 등의 댄스 동아리가 모인 댄스동아리연합, 국악 동아리 '여민락', 어쿠스틱밴드 'BAB' 등이 있었다. 문화관 앞과 잔디광장에는 94개 동아리 부스가 설치되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미술관

'나의 욕망에서 나를 구해줘'



전시 '나의 욕망에서 나를 구해줘: 예술, 실패한 신화'가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심상용)에서 열린다. 본 전시는 '신화 myth'와 '미술관학 Museology'라는 두 개의 화점을 끌어안는다고 심상용 관장은 설명한다. 전시명 '나의 욕망에서 나를 구해줘 Protect Me From What I Want'는 전광판 예술가 제니 홀저의 작품명을 딴 것이다. 심관장의 표현에 따르면 제니 홀저의 행보는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 변기를 불후의 신화로 만들어온 역사의 진부한 연장'이다. 전시는 신화화된 자본(주의), 신화화된 소비 등에 중독된 미술을 취급하는 매뉴얼 측면에서 미술관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동창회소식

김종섭 회장, 서울대 이사로 선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김종섭 회장이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 김회장은 향후 2년간 이사회에 참석해 서울대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진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대 이사회는 올해 1월과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4명의 후임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 후보초빙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외부인사 후보로 추천된 김종섭 회장은 과반수 득표를 얻어 신규 이사로 선임됐다. 교육부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한 김회장은 지난 2월 15일 열린 2024년 제1차 이사회에 참석했다.



총동창회장과 재학생의 토크콘서트

‘총동창회장과 재학생의 토크콘서트’가 지난 3월 6일 관악캠퍼스 관정도서관 양두석홀에서 열렸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국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기업의 오너이자 수시로 거액을 기부하는 자산가이다. 김회장은 이날 재학생들에게 학점과 취업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할 것을 강조했다. 졸업하고 54년이 흘렀지만 지나온 인생 중 가장 생각나는 때가 대학 4년이라며 “학창시절 많은 추억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어 “빌 게이츠도 거액을 벌고 대부분 기부했다. 그런 분들이 부자 될 자질이 있는 분들이며, 나눌 줄 아는 사람들에게 부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실천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굴러들어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참석한 재학생 모두에게 기념품으로 바디워시 세트를 선물했다.

3월 조찬포럼



총동창회는 지난 3월 1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서울대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김영호(78외교)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이날 강연은 최근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기초로 했다. 해당 도서는 2013년부터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설문한 결과를 분석한 책으로 본래 3급 비밀로 분류됐으나, 우리 국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전격 공개됐다. 김동문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북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내놓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지방에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공급하지 못하는 북한의 실상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총동창회는 이날 참석한 동문 모두에게 이 보고서를 증정했다.

수요특강 ‘인간다움’

지난 2월 28일 마포구 본회 장학빌딩에서 총동창회 주최 수요특강이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에서 김기현(78철학/서울대발전재단 부이사장)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저서를 바탕으로 ‘인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그는 40여 년 철학 연구의 소산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생각을 내놓고 한 권의 책으로 갈무리했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어쩌면 간절히 찾던 답을 구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과 함께 강의가 시작됐다. 김교수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간다움’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인류사 속에서 간난신고 끝에 획득한 ‘인간다움’의 재료들, ‘공감’, ‘이성’, ‘자유’다. 또한 “앞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지능은 문제를 푸는게 아닌 문제를 던지는 능력으로서의 지능이며, 그 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 모두에게 김교수의 책 ‘인간다움’을 증정했다.

단과대 및 학과동창회 장학금 4억5000만원 넘어

2024학년도 1학기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학과동창회의 장학금을 조사한 결과 집계된 18개 동창회에서만 총 210명의 재학생에게 약 4억5233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동창회의 항상장학재단이 장학금 총액 1억 4845만 원, 장학생 수 66명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1인당 장학금액은 의대동창회가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대동창회가 464만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대동창회, 약대동창회, 수학과동창회도 총동창회 특지장학회를 거쳐 각각 5명에게 500만원, 4명 500만원, 1명 24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보건대학원동창회는 총동창회 특지장학회로 3명 300만원에 더해 3명에게 2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환경대학원동창회는 동창회 차원에서 7명에게 78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 고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장순영 장학금, 노용희 장학금 등으로 9명에게 665만원을 지급했다.

4월 수요특강

- 일 시 : 4월 24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강창희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
- 주 제 : 행복 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납부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
- 참가비 : 2만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참가비 계좌: 신한은행 140-013-055991 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행사명 기재(예_홍길동4월수요)
- ※ 4월 15일(월)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참가비 환불 불가

모교발전을 위한 나눔골프대회

- 일 시 : 5월 13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렉스필드CC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광여로 1115)
- 참가범위 : 총동창회 회원
- 진행방법 : 친선팀과 단과대학별 단체전 대항전으로 진행함 (자세한 행사 안내는 총동창회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 참가신청 : 40팀(총160명) 선착순 마감 [성함, 출신대학,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 참 가 비 : 50만원 이상을 총동창회에 사전납부 *그린피,카트비,그늘집,점심,저녁만찬 비용 및 참가 선물 제공
- 참가비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협찬금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물품협찬 : 총동창회 담당자(02-879-8204)에게 문의
- 문 의 : 02-702-2233(대표전화) 02-879-8204(담당자)
- ※ 5월 1일(수)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참가비 환불 불가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유튜브에서 동창회소식 보세요~

본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창회 행사를 기록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youtube.com/@snuartalumni?si=8-bOgTTNecVWwgOI2>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송광자(62응미) 고문 3월 29일 부군(조석래 효성명예회장) 별세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하여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가로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사이즈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100*80	6,6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탐방

자비량 선교사

강인선(73회화)

본회 부회장 겸 후원회설립준비위원장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선교활동 지역은?

제가 처음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미얀마에 간것은 아니었죠. 아마 선교하라고 했으면. 미얀마에 갈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미얀마가 오십여 년 동안 군부독재로 폐쇄되어 있다가 2014년 개방을 하게 되자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죠.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황금의 땅이라고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며 붐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도 그곳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사를 만들든지 새로운 사업을 열어서 아들에게 하게 해보자며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무엇에 홀리듯 갑자기 미얀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가 어떤 땅인지 아무 지식도, 아는 사람도 없이 이민 보따리 싸듯 6개의 이민 가방에 밥솥과 쌀 한 포대도 담아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때 나는 환갑이 지난 나이였어요. 그러나 미얀마 땅은 예상했던 것보다 모든 상황이 척박하고 외국인들이 할만한 사업이 거의 없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사업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우리는 한인교회를 나가며 미얀마에 나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자주 만나며 교제를 하다가 선교에 대한 호기심에 우연히 평신도 선교사 교육을 받게 되었고 2017년 중앙성결교회에서 저희 부부는 성결교단 1호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은밀하고도 저희들이



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으로 이끌었습니다. 2018년 미얀마의 중북부에 있는 냐웅세라는 곳에 믿음의 친구들과 교회를 지어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께 헌납하

였습니다. 지금 그곳은 미얀마쿠테타로 인한 내전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가지 못해 양곤 외곽지역에 있는 빈민촌을 찾아 쌀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양곤 주변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힘든 점과 보람된 점은?

미얀마는 6.25전쟁으로 한국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쌀을 원조해주었던 나라로 당시 한국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지요 그에 보답하는 마음도 있어



요. 또한 우리 성결교단의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학교에 보내는 사역도 합니다. 미얀마에 간 지, 벌써 십 년째입니다. 처음에 미얀마에 도착해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참 많이 울었어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음식도 안 맞고 친구도 없어서 참 어려운 생활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목사 선교사



님들을 도와서 선교사역을 하다 보니 이제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는 온전히 저희 힘으로 하는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쌀을 원조해줬던 미얀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아먹었던 쌀을 갚을 수 있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을 느낍니다. 오래전 참으

로 비참하고 가난한 조선땅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아무 댓가없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목숨까지도 바치며 우리 국민들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받은 사랑을 미얀마 땅에 흘러넘치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회 설립의 의미와 미래 비전은?

아마 한 2년 전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황현수 상임부회장님으로부터 우리 서울대미대동창회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도 대한민국 최고인 우리 서울대미대가 후원회가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학생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선배들과 재학생들을 연결시켜줘서 미술계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은 미술의 불모지였던 시대에 어렵게 지금의 수준까지 미술세계를 확장시켜왔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그것을 헤쳐나가기위한 그들만의 노력과 방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충고하고 격려하며 힘들 때 위로 하는 그런 선배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서울 미대 졸업생들은 모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서도 지금의 성공과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만들어내고 우리 후배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문회와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는?

선후배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동문회의 역할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상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악대상 수상 고광석(59회화)

고광석 동문이 지난 3월 29일 열린 제26회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2024년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와 함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 고동문과 함께 상을 받은 서울대 동문은 금난새(66음대) 성남시립교향악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류진(78인문대) 풍산그룹 회장·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다. 사전 신청한 서울대 동문 500여 명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고동문은 지난 2022년에는 자택을 매각하여 마련한 20억 원을 서울대총동창회에 기부한 바 있다. 그는 기부금이 "자유·민주·정



의의 깃발 아래 우리나라 국민복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분야의 미래지향적이고 공명정대한 지도자 양성을 위해 '고암 늘푸른꿈나무장학재단' 설립자금"으로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학과에 편입해 졸업하여 이례적으로 미대와 법대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한일은행에 입사하여 법률·세무 상담 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일했다. 현재 고동문은 아람기획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광화문아트포럼 회장 취임 김춘옥(64회화)

김춘옥 동문이 지난 2월 17일 광화문아트포럼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광화문 동원참치 세종점 별채에서 광화문아트포럼 신년 하례식과 함께 김동문의 취임식이 개최됐다. 한근석 광화문아트포럼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2년 임기를 마친 이남찬 전 회장이 인사말에 이어 김동문이 취임사를 했다. 이 자리에 립만선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운영위원장, 신종섭 상형전 고문, 이태길 신작전 회장, 전주 서울대 명예교수, 장완영 강원대 명예교수, 최용천 서울예술대학 명예교수, 강승애 한국여류화가협회고문, 이민주 한인도현대작가교류회장,



서성근 분당작가협회 고문, 김은주 서울미술협회부회장, 신영범 삼영칼라 대표, 송근영 한국화여성작가회회장, 박병근 작가, 최경희 작가, 박영수 작가가 참석했다. 광화문아트포럼은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창작 활동 및 국제 미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05년에 문을 열었다. 광화문아트포럼은 매년 올해의 작가를 선정하고 수상 기념전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과 함께 아시아 현대미술 청년작가 공모전을 열어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있다.

동화 '사과꽃 초대장' 삽화 박영애(71회화)

박영애 동문이 삽화를 그리고 고명순 작가가 글을 쓴 동화책 '사과꽃 초대장'가 지난 12월 출간됐다. 이 책은 제주아동문학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명순 작가의 첫 동화집이다. 5편의 단편동화를 묶었다. 저자는 작가이자 어린이집 원장이다. 책에 실린 다섯 편의 동화는 주로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책은 아이들의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가득 담아 재미있는 발상과 이야기로 가득하다. 한편 돌봄과 장애, 소외된 존재들, 죽음과 이별과 같은 무거운



소재들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려내면서 웃음과 감동을 함께 전하고 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응용미술과를 졸업했다. 1990~2002년 동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미술실기를 강의했다. 2002~2018년 명상지도사로서 마음수련 명상센터를 운영했고, 2019년 은퇴 후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해 현재 어린이집에서 동화구연을 하고, 디지털 드로잉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있다.

BIFF 차기 이사장 선출 박광수(76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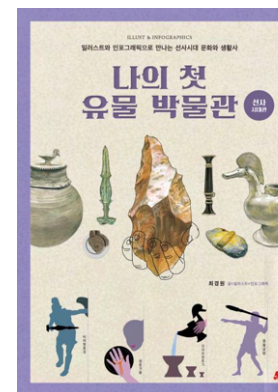
박광수 동문이 지난 4월 1일 단독으로 부산국제영화제(BIFF)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BIFF 혁신위원회 7인의 추천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 연말부터 차기 이사장 후보를 물색해 왔다. 임추위는 "조직 역량, 영화제 미래 비전과 방향 제시, 영화제 혁신 의지, 정치적 중립과 부산에 대한 애정을 이사장 자격 요건으로 합의했고, 박광수 후보가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발표했다. 박동문은 "영화 산업의 불황 속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며 직원



면담을 포함해 "빠른 시간 내 영화제의 현황을 파악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영화제를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2년간 BIFF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는 부산영상위원회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금의 영상위 체계를 확립하는 데 공헌했다. 2006년부터 2년간은 BIFF 아시아 필름마켓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영화감독으로서는 '철수와 만수', '이재수의 난', '그 섬에 가고 싶다' 등을 만들었다.

나의 첫 유물 박물관 최경원(86산미)

최경원 동문이 지난 11월 일러스트와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는 선사시대 문화와 생활사 '나의 첫 유물 박물관. 선사시대관'을 출간했다. '나의 첫 유물 박물관'은 우리나라 유물을 박물관에 박제된 화석이 아닌, 당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했던 도구로 바라보고 재해석한 논픽션 그림책이다. 저자가 수십 년간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유적지를 발로 뛰면서 직접 찍은 사진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그린 일러스트를 함께 실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유물의 형태와 디자인, 구조와 기능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



하며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고, 유물이 사용될 당시의 상황을 인포그래픽 등의 그림으로 재현하여 우리에게 살아 있는 역사를 느끼게 한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에서 공업디자인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주요 저서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Good Design', '알레산드로 멘디니', '끌리는 디자인의 비밀', '디자인 미학' 등이 있다. 현재 '현대디자인연구소'의 대표이며, 한국 문화를 현대화하는 디자인 브랜드 '훗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다.

쿵! 공룡발바닥 오숙진(98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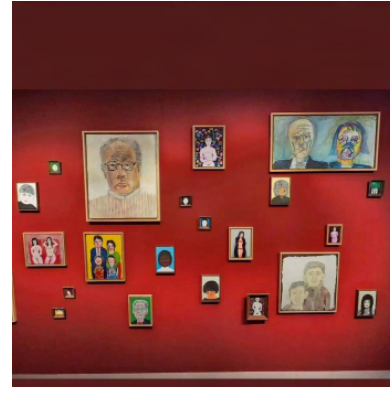
오숙진 동문이 그림을 그리고 김현태 작가가 글을 쓴 동화책 '쿵! 공룡 발바닥'이 지난 11월 30일 출간됐다. '쿵! 공룡 발바닥'은 많은 동물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다채로움, 그리고 아이들만이 가진 그 속의 순수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쿵! 공룡 발바닥'은 오동문의 첫 번째 그림책이다. 이후 2024년 오동문이 그린 '어마어마한 오줌 풍선'(저자 김현태), '엄마의 밥'(저자 김현태) 등의 책이 출간되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림책을 낼 계획이라



고 밝혔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피렌체 국립미술원에서 그림을 공부했다. 개인전 'Manda_La(만다라)'(2015, 아트스페이스 모이), 'Krishna Cutting Dust'(2013, the cut 윈도우 갤러리), 'Topia'(2011, 박수근미술관), 단체전 'FLAT IS DEEP'(2015, 네이버 사옥) 등을 열며 작가로 활동 중이다. '오동문은 제14회 대원상 콘텐츠대상 우수상을 받았으며 박수근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5기 입주 작가로 활동했다.

사람이 꽃이다 김중학(62회화)

김중학 동문의 개인전 '사람이 꽃이다'가 현대화랑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개최된다. '설악산의 화가', '꽃을 그리는 화가'로 알려진 김동문은 풍경뿐만 아니라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쉬지 않고 인물을 그려왔다. 60여 년의 화업 기간 중 그가 그린 '인물'을 특별히 조명하는 전시로, 공개되는 143점의 작품 대부분이 처음으로 대중과 만나게 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전시는 김동문의 초기 인물 작품과 아카이브로부터 출발한다. 3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의 첫 번째 전시장은 종이 작업과 유화 작품 등 총 22점으



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 활동 초기에 추상화, 판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김동문은 인물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보여왔다. 그는 1977년부터 2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며 풍경, 정물, 인물화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하면서 구체적인 형상에 대해 탐구했다. 한편, 김동문은 국립현대미술관(2011), 통인옥션갤러리 (2009), 조현화랑(2007)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지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손문자 기획초대전 손문자(62응미)

손문자 동문의 기획초대전이 지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열렸다. 손동문은 꽃을 중심으로 물고기, 동물, 정물 등을 조화롭게 담아낸 작품을 선보여왔다. 손동문은 색채를 매개로 인생관과 가치관을 표현한다. 그는 2000년대 초부터 꽃을 중심 소재로 한 작품을 그려왔다. 최근에는 단색화로 장르를 확장하여 간결하고 추상적인 단색화 '산' 시리즈를 발표했다. 한편 손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후 홍익대학교 최고위과정을 수료하



고 파리그랑쇼미에르의 알렉산더 아토졸 교수 아래에서 수학했다. 15여 회 개인전을 개최했고, 2018년 KIAF(금산갤러리) 출품 등 1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삼성전자, 효성물산, 크라운제과, 브래덴코 등에서 손동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손동문은 한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업작가이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글 추상 거장전 황인혜(65회화)

황인혜 동문의 전시 '한글 추상 거장전'이 지난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아트불갤러리 청담에서 열렸다. 문화강국코리아 협동조합에서 개최하는 카타르 전시를 앞두고 서울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는 30여 점의 한글 추상 작품이 전시됐다. 황동문은 한학자이자 서예가인 부친으로부터 붓글씨를 배우며 이후 작품활동에서 보이는 필선의 기량을 연마했다. 그는 한글의 조형성, 수묵의 농담과 번짐을 활용해 전통회화에 자신의 고유성을 담았다. 추상 회화에 한글의



자모를 이용한 것은 한글의 역사성에 대한 황동문의 금지가 반영된 것이다. 황동문은 "한글을 주제로 작업한지도 꼭 30년이 지났는데 '사랑'이란 글꼴의 선이 주는 아름다움과 그 간직한 뜻에 매료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깃들어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되길 꿈꾼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동문은 33여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자연-관계성 김춘옥(64회화)

김춘옥 동문의 개인전 '자연-관계성'이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한 갤러리 U.H.M에서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열린다. 50여 년간 한국화의 길을 걸어온 김춘옥 선생의 1990년대 작품부터 최근 신작에 이르는 4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김동문은 한국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발전을 추구해 온 대표적인 작가이다. 작가의 깊은 의식이 함축된 명제인 '자연-관계성'은 자연의 다양한 현상과 환경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생태학적 관점의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성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거울처럼 비추



어가는 의식이다. 그의 작업을 이루는 중심적인 기법은 뜯어내거나 찢거나 해체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연성의 효과를 예술적 감성으로 승화시킨 현대적 기법 데콜라주(Décollage)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장, 한국화여성작가회 회장 등을 맡았다. 이러한 공로로 2003년 옥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현재도 한국화진흥회 회장이라는 소명을 짊어지고 있다.

김춘옥

자연——관계성

갤러리 U.H.M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60길 49
대원정사빌딩 본관 4층

T. 02-6677-5768

2024
3.14——4.5



고요의 정원 이영학(70주소)

이영학 동문의 회고전 '고요의 정원'이 지난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사동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 초기작부터 근작에 이르는 조각 작품과 아카이브까지 200여 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이다. 버려진 주춧돌이나 바닥돌을 파내어 새 생명을 불어 넣은 작품 '물확', 노동자의 땀이 배어 있는 연장으로 탄생시킨 '새' 연작 외에도 다양한 '인물상'이 출품되었다. 이번 회고전은 '물확', '새', '인물상'과 같은 연작들을 통해 최소한의 조형 언어로 가장 한국적인 조각을 만들어 온 이동문의 작품 활동 전반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서울옥션 관계자는 "이영학은 한국 현대조각을 대표하는 작가이지만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조형언어로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담아내는 작가의 작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고요의 정원'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로마 예술원과 시립 장식미술학교에서 수학했다. 이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봄·칠 나성숙(71응미)

나성숙 동문이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7일까지 송원아트센터에서 '봄·칠'전을 개최하였다. 본 전시에는 북촌한옥마을 옷칠공방인 서로재에서 수강한 제자들 20명과 함께 제작한 옷칠화, 소반, 쟁반, 콘솔 등의 기물이 전시됐다. 나동문은 2004년 부군의 갑작스런 소천 이후 전통 기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옥, 소목, 소반, 옷칠, 장식 등을 배웠고 북촌한옥마을에 봉산재와 서로재를 설립하여 전통문화최고위과정, 나무학교, 세종학교 등을 개설하였다. 그중 나성숙옷칠학교는 25기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2010년부터 제자들을 중



심으로 '서로재이야기' 그룹전을 열고 있다. 나동문은 "전통은 전통에 머물지 말고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려의 상감청자가 조선의 달항아리로 바뀌었듯이 현재의 옷칠도 기법은 전통을 준수하더라도 조형의식은 바꾸어 새로운 창조를 통해 승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동국제강 산하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전시장인 송원아트센터는 서울시건축상을 받은 바 있다.

창신동의 달 최진욱(76회화)

최진욱 동문의 개인전 '창신동의 달'이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아트사이드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최동문은 한국 미술의 '감성적 리얼리즘'을 개척하여 눈앞의 형상과 일상의 풍경 주제로 작업해왔다. 아트사이드 갤러리(1층, 지하)와 아트사이드 템포러리(3층) 총 3개의 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대규모 개인전은 40년간의 작업 활동으로 구축해 온 최동문만의 시선을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3층 아트사이드 템포러리는 기존의 정형화된 전시장의 성격을



탈피하여 새롭고 도전적인 전시를 선보여온 공간으로 첫번째 스핀오프 프로젝트(Spin_off Project)를 최진욱과 함께 하여 아트사이드가 추구하는 개성과 예술의 다양성을 제안한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다. 그는 일상의 찰나를 포착하고 동시대의 리얼리티를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역사적 뉘앙스를 전달하는 작업을 해왔다.

풍경 이정희(82주소)

이정희 동문의 개인전 '풍경'이 오는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이동문의 작품은 인류의 첫 궁금증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의 작품은 회화를 입체로 보는 것 같은 연출력이 돋보인다. 물 위에 떠 있는 섬(산)들은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장면을 연상시킨다. 태초의 산이 전하는 신화적 창조의 원형을 명징한 도자기법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작품 제작은 주로 '슬립 캐스팅' 기법을 활용한다. 액체 상태의



점토를 활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고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마치 아무런 접촉도 없는 무결점의 순결한 상태를 창조하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 이번 전시는 총 2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이동문은 천안 범양 레우스아파트 조형물 제작(2020), 슬릭갤러리(2018)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후원광고

이정희 개인전

풍경

4.24 ~ 4.30

선아트스페이스
T. 02-733-0730

서울 종로구 삼청로 75-1 지하1층

봄, 색으로 스며들다 이계원(84서양) 신수진(91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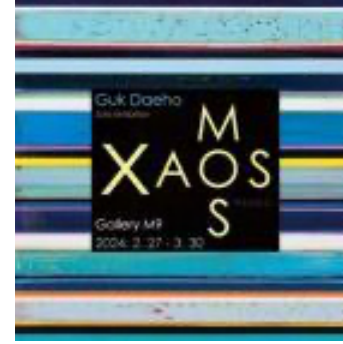
이계원, 신수진 동문의 전시 '봄, 색으로 스며들다'가 지난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청주시 나노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회화의 표면을 회화 표현의 소재로 삼아, 회화적인 평면을 다차원적 관점으로 표현한다. 그는 평면 위에 여러 겹의 색 면을 겹쳐 놓아 평면의 공간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평면을 유지하면서 입체 구조가 평면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돌출된 공간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동문은 현재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



다. 신동문은 회화와 판화의 특성을 함께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낸다. 그는 섬세한 차이를 반복해 수없이 겹치는 레이어에 선을 그리거나 색을 입혀 추상적 공간을 만든다. 신동문의 작품은 때로는 꽃이 피어나는 형상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재현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신동문은 'Frameless 99: National Juried Exhibition of Paper'에서 대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XAOSMOS 카오스모스 국대호(85서양)

국대호 동문의 개인전 'XAOSMOS 카오스모스'가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초구 Gallery M9에서 열렸다. 국동문은 자신의 기억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나열하여 화면에 재구성한다. 화면은 빼곡한 장면으로 채워진 필름을 닮았다. 작가의 개인적 사유로 그려진 작품이지만 감상자는 국동문의 작업에서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요소를 찾으려 하며 작품에 몰두할 수 있다고 김치현 갤러리 엠나인 큐레이터는 말한다. 작품에 보이는 높은 채도의 물감은 동시대 공연장의 현란한 광선을 연상케한다. 눈부신 조명은 불쾌함을 주는 장치이면서



도 사이키델릭한 장르적 쾌감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유화와 아크릴을 한 화면에 사용하여 만들어내는 미묘한 질감의 차이와 색의 충돌은 국동문 작업의 회화성을 잘 드러내는 요소이다. 한편 국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파리 8대학 대학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파리 갤러리협회 주관, 파리 국립미술학교 후원 '올해의 신인작가'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외교통상부와 서울대학교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예술의 맛 : [김치]의 멋 황인선(94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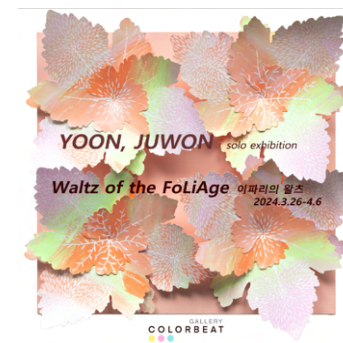
황인선 동문의 개인전 '예술의 맛 : [김치]의 멋'이 지난 2월 6일부터 29일까지 케이움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미를 음식과 연결 지어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황동문의 작품을 통해 익숙한 김치의 맛을 보여줌과 동시에 현대미술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했다고 케이움갤러리는 말했다. "맛은 감각적이고 멋은 서정적이다. 전시는 예술의 맛을 느끼고 김치의 맛을 즐겨보고자 했다. 멋은 아름다움과는 별개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것과 일체화되어 움직이



는 마음의 리듬이 생기지 않으면 멋있다고 할 수는 없다.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것 그리고 친밀감을 주는 것에서 우리는 보다 쉽게 멋을 느낄 수 있다". 오늘날 현대미술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재료와 주제를 탐구하면서 음식을 화폭에 담는 것을 넘어 식자재를 작품의 주재료로 활용한다. 그 중에서도 황동문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식이나 한식 식자재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황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김치를 소재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치며 활동하고 있다.

이파리의 왈츠 Waltz of the Foliage 윤주원(95서양)

윤주원 동문의 개인전 '이파리의 왈츠'가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서초구 갤러리 컬러비트에서 열린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질서와 순환을 이파리에 대입하여 판화매체를 활용한 콜라주 작업을 선보인다. 보이는 것에 대해 강박적이라 할 정도의 끊임없는 생각을 패턴으로 표현함으로써 왈츠와 같은 리듬과 잔상을 불러일으킨다. 윤동문의 오랜 조형연구와 작업은 '작은 단위가 모였을 때의 힘'이라는 소신에서 자연의 생명력이라는 힘을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판화기반이지만 단 하나의 에디션을 강조하고, 자연을



소재로 하지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 형태와 색에서 조합의 변형을 서슴지 않는다. 또한 주요 매커니즘인 패턴이 보여준 시각적 체험의 확장은 이번 전시에서 자석으로 떼었다 붙이며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거나, 기본적으로는 평면기반이지만 어느 방향에서도 감상하거나 걸어들 수 있는 입체성의 자유를 제공한다. 윤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하였으며 10차례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통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양민하(95시각) 김민애(00조소) 외 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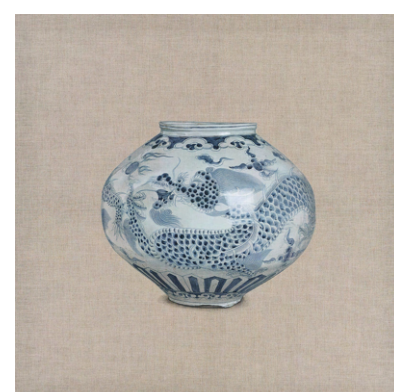
양민하 동문과 김민애 동문이 참여하는 단체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지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갤러리SP에서 개최되었다. 참여 작가는 김민애, 양민하, 임선구, 최윤희, 한진 작가다. 갤러리SP는 이번 전시를 앞두고 작가들에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존재'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 작품은 그에 대한 답이라고 밝혔다. 작품 속으로 펼쳐내는 작가마다의 언어 차이에서 장면과 서사가 발생한다. 양동문의 답은 '컴퓨터이셔널 미디어 속 인공 생명에게는 기립의 개념이 없다'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에 그 속에서 살아남고 살아있을 수 있는 '생



존'의 시각에서 접근하며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다. 김동문은 '울곧게 서 있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존재론적 명제를 던진다. '서 있을 수 있다'의 의미를 '중심을 세우고 곳곳하게 정지함'이라는 기존의 정의 대신 둘러싼 조건과 맥락들을 통해 살핀다.

청운 허승희(03동양)

허승희 동문의 개인전 '청운'이 지난 3월 5일부터 29일까지 성북구 옹스큐라1에서 열렸다. 연적 시리즈로 많은 주목을 받은 허동문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용이 들어간 연적, 필통, 도자기 등을 포함하여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을 담은 회화 20여 점을 선보였다. 허동문의 작업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초석으로 한다. 동양화와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하고 10여년 이상 문화재 복원 모사를 연구한 허동문은 초충도, 모란도, 화훼화, 기명절지화 등 전통적 회화양식의 현대적 표현으로 작업을 해왔다. 2022년부터는 연



적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허동문은 자신의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을 비롯한 문화재, 특히 해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접하기 어려운 훌륭한 우리 문화재들을 회화적으로 표현해 대중에게 소개함으로써 그 시간과 가치를 공유하고 싶었다"라고 창작의 동기를 밝혔다. 한편 허동문은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에 복원, 모사본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Tree Beings, Forest 시지의(김지현 08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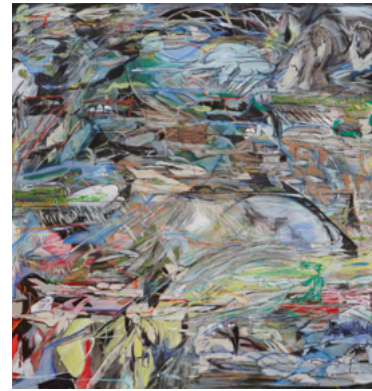
시지의(김지현) 동문의 개인전 'Tree Beings, Forest'가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삼청동 갤러리도스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자연과 합일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동양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 동양 철학에서 자연은 주로 본받아야 할 대상이자 이상적인 삶의 대상이다. 김동문은 자연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자연의 겉모습이나 미적 요소가 아닌 자연의 본질에 담겨 있는 정신 또는 이치를 화폭 위에 구현한다. 어린 시절 나무 아래에서 올라다보던 경험에서 시작하여 심상 속 생태계를



이루게 된 이미지 세계는 변화와 확장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성, 감각, 감성에 의한 느낌이 집적된 김동문만의 고유한 숲 세계로 나타난다. 작품의 주된 재료인 먹 등의 동양화 전통재료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매력과 함께 거칠고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는 장지에 피그먼트 프린팅과 혼합재료를 사용한 'FSW1 느티나무 숲', 'FSW15 밤의 숲', 'FSW18 동백 느티나무' 등의 작품과 먹 드로잉 '흐름-나무넝쿨 드로잉' 등 다양한 재료적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 전시됐다.

말할 수 없는 것들 서제만(12서양) 외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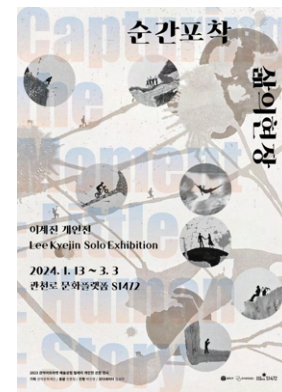
서제만 동문이 참여하는 2인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갤러리기체에서 개최되었다. 함께 참여하는 작가는 몽게지 은카파이 작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노니 출신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케이프타운과 서울에 살고 있는 두 추상 회화 작가가 내면의 음률과 도시 풍경(몽게지 은카파이) 또는 삶의 크고 작은 사건, 장소 등에 얽힌 기억들(서제만)을 담아낸다. '즉흥성'은 두 작가 작업을 아우르는 한 축이다. 다만, 이는 오로지 직관에 몸을 내맡긴 채 사고의 일시 정지 상태에 이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건 대상이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하는 기억, 감정을 집요하게 붙들고 되새기는 '사고 지연(thought retardation)'에 가깝다. 그것은 곧 말로 내뱉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화면에 스미도록 하거나, 새기는 일이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하였다. 개인전으로 'Hall1'(2023, 서울)을 개최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 우석갤러리(2023, 서울) 등이 있다.

순간포착 : 삶의 현장 이계진(15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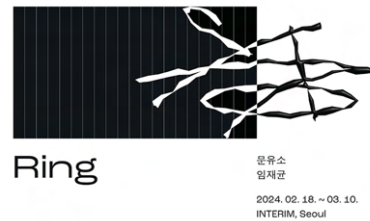
이계진 동문의 개인전 '순간 포착: 삶의 현장'이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에서 개최됐다. 관악아트마켓 예술상점 공모에 선정 전시인 이번 개인전에서 이동문은 먹과 소금을 활용해 다양한 삶의 현장 포착한 회화를 선보였다. 이동문은 전통 수묵기법에 소금을 활용하여 먹의 예측 불가능한 번짐을 강조하는 '소금산수'를 2018년부터 제작해 왔다. 그는 작업을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포착한 모습을



그린다. '소금산수' 시리즈는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의 풍부한 감정들을 수묵의 기법에 빚대어 작가만의 시선으로 표현한 시리즈이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2022 경기문화재단 아트경기 선정작가를 수상했으며, Gallery Sodam 뉴욕, 이오갤러리, 한원미술관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Ring 임재균(20조소) 외 1인

임재균 동문과 문유소 작가의 전시 'Ring'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서울 중구 인터럼에서 열렸다. 전시 제목 '링 Ring'은 무엇보다 격투기의 공간인 링을 가리킨다. 임동문과 문작가의 작업은 이 전시에서 링에 오른 격투가처럼 서로 충돌한다. 임동문의 작업은 "골조의 물질성을 흰히 드러내거나 각기 다른 방향의 두께를 굳힌 뼈대들"로 "하나의 무리와 같이 연결되어 보이거나, 각기 다른 힘 혹은 양감의 방향을 가지고 개별로 서있다." 문작가의 회화는 무관심하고 파괴적인 스트로크로 임동문의 작업을 마주 본다. 이들이 만드



는 풍경이 "싸움 치고는 지나치게 조화롭고 즐길만큼 미적인 쾌가 드러남에도" 보는 이를 불현하게 한다면 이는 이들이 "고집불통으로 서로의 세계를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전시의 서문은 설명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업으로는 임동문의 신작 'Node' 연작과 구작 'Scale', 문작가의 연작 중 'each different process but sharing family tree' 등이 있다. 'Node'라는 제목은 '교점' 혹은 '마디'를 뜻한다.

No Point of Contact 설고은(석21졸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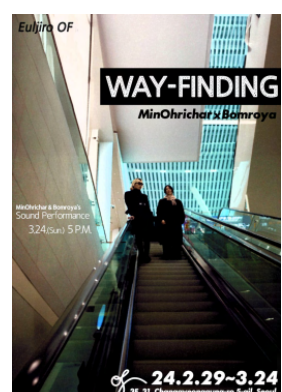
설고은 동문의 개인전 'No Point of Contact'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스페이스윌링앤딜링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설치 작업 '찾을 수 없는 너의 흔적을 찾아 조슈아 트리 공원을 검색하지만 유튜브의 짧은 영상들은 끝없이 돌아가는 회전문처럼 연결되지만 연결되지 못한 누군가의 기억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총 112개의 캔버스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총 20개의 레이어로 중첩되어 있다. 설동문은 각 레이어를 지정하는 텍스트화 된 일종의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 형태와 색이 위치하는 좌표를 지정한다. 생성된



레이어의 정보값에는 사용한 물감의 종류, 바르는 방법, 색상 코드값, 투명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좌표를 차지하는 형태들에는 고유의 색이 부여되는 것이다. 설동문은 기하학적 도형이나 선, 특히 딱 떨어지는 정확한 테두리가 안과 밖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닫힌 도형만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20개의 레이어를 정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는 시도를 지속한다고 작업 과정을 설명한다. 한편, 설동문은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모교 서양화과 석사를 졸업했다.

Way-Finding 남민오(박15졸디자인) 외 1인

남민오 동문과 봄로야 작가의 전시 'Way-Finding'이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4일까지 을지로OF(오브)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 영화 감독 크리스 마커(Chris Marker)의 작품 '태양 없이 Sans Soleil'를 레퍼런스로 하여 길찾기와 주고 받음, 송수신을 선행하는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두 작가는 송신자로서 작가의 위치, 그리고 수신자와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전시의 기획자인 오웅진 을지로OF 디렉터는 남동문과 봄로야 작가의 작업을 함수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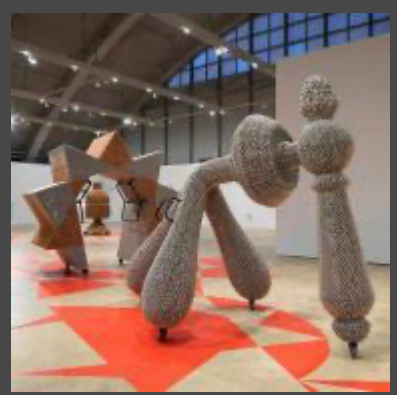
유하여 설명한다. 남동문의 작업은 "무척 또렷한 수식(fidelity)을 보이는 직선 함수에 가깝다"면 봄로야 작가는 "폭넓은 정의역을 갖는" 함수이다. 남동문은 고유하게 정의한 미디어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 직관 보여주는 반면 봄로야 작가는 수많은 자신이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작업의 매개적 유효성을 보여준다. 전시의 마지막 날에는 남동문과 봄로야 작가의 사운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3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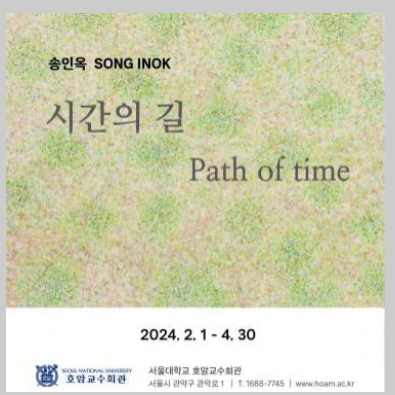
암태도

서용선(75회화)
23.11.23-24.5.5
문화비축기지 T5



지속 재연

양혜규(90조소)
23.11.24-24.4.7
헬싱키미술관



시간의 길

송인옥
2.1-4.3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Five Acts

홍영인(92조소)
2.3-5.5
Spike Island



The Greatest Moment

김창열(49회화) 외 1인
2.15-4.24
S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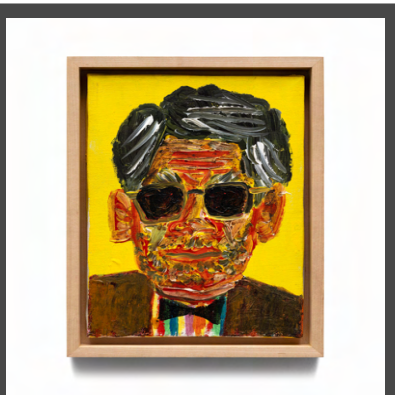
명료한 서술을 지우니 또다른 지도가 드러났다

우민정(4동양) 외 3인
2.28-4.6
갤러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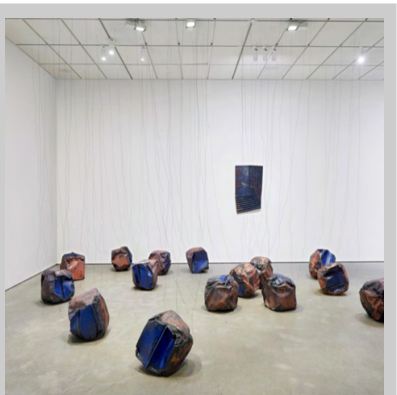
사운드: 노이즈&피드백

한재석(14줄조소) 외 1인
3.2-6.2
옥상팩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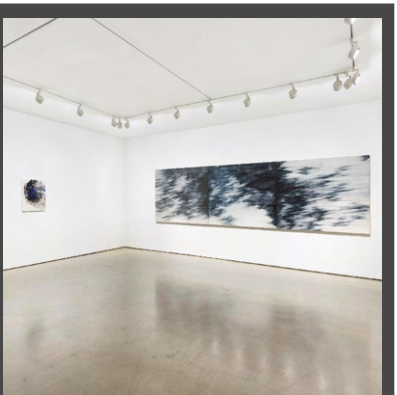
사람이 꽃이다

김중학(62회화)
3.6-4.7
현대화랑 본관



Yesterday is tomorrow

이광호(87서양)
3.7-4.30
리안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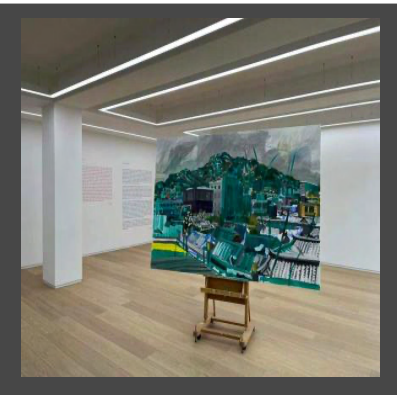
풍경

정주영(88서양) 외 2인
3.13-4.14
갤러리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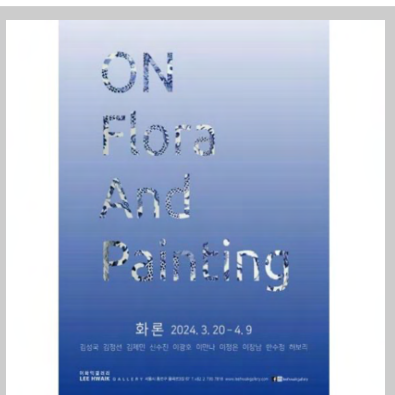
자연-관계성

김춘옥(64회화)
3.14-4.5
U.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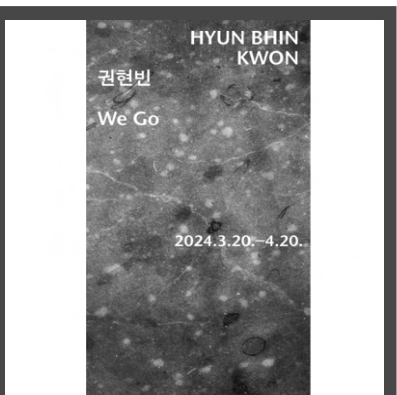
창신동의 달

최진욱(76회화)
3.14-4.13
아트사이드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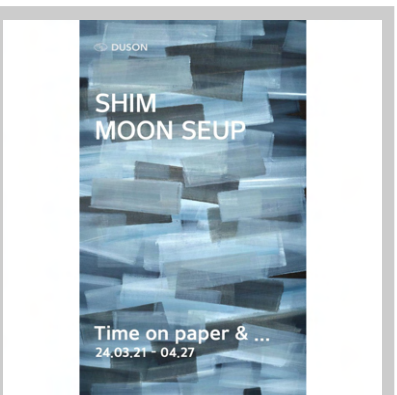
on Flora and Painting 展

이창남(85서양) 외 9인
3.20-4.9
이화익갤러리



We Go

권현빈(10조소)
3.20-4.20
두산갤러리



Time on paper & ...

심문섭(61조소)
3.21-4.27
두손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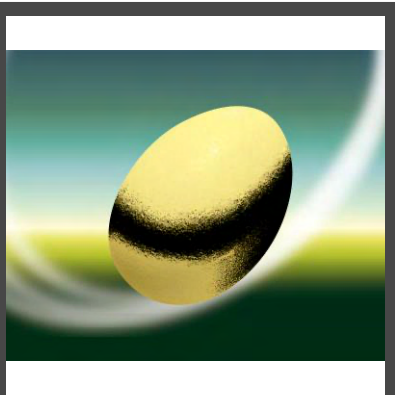
새와 개의 노래

박종호(99서양) 외 1인
3.21-4.20
갤러리 SP



이파리의 왈츠

윤주원(95서양)
3.26-4.6
갤러리 컬러비트



생명. 비상

안기순(78회화)
3.27-4.30
갤러리원



소녀와 레후아

김상경(87서양)
4.1-4.12
떼아트 갤러리



풍경

이정희(82조소)
4.24-4.30
썬아트스페이스